

# 時兆에 對한 新所感과 新教示

金 相 濬

## (一) 피뎌진 雨雹 (示八〇七) (續)

古來로 當身갓흔 數多의 薄學者들이 此를否認하여 오다가 只수 브러 百六十年前에 佛蘭西의 大學者도 사우술이라 하는 이가 科學的으로 研究하여 그 正體를 說明하였는데 그 表面에 無數不可知의 赤色의 下等動物 卽 菌蟲이 있다 하고 又一八二二년에 瑞典植物學者 엘니아, 푸레스는 顯微鏡으로써 此紅雪을 檢閱한 結果 鮮美한 無數의 小珠體를 發見하였다는데 그 球體는 卽 一種의 下等動物 卽 藻類의 屬이라 하고 又一八八三年에 同國植物學者 윌헬름은 此紅雪을 研究檢査한 後에 그 氷雪上에는 무상植物이 있스니 그 生한 植物은 四十二種이 있다 하고 又 同國人 라셀, 하임이라 하는 이도 亦是 紅雪에는 三種의 下等植物類가 있다 하였고 此外에도 極地에는 茶褐色의 氷과 或 綠色의 雪도 있다 하니 學者여 이제는 此를 科學的으로 하여

是認, 아! 나 信認할 수 있게 되었습닛까。當身이 設或只수까지라도 自然의 科學을 빛치여 보아서 是認치 아니한 다 할지라도 日後此日此時에 하나 님께서 以上學理의 諸種의 紅雨와 赤雪以外에 또한 將次 그 보다 더 놀랄 만한 奇蹟的으로 超自然의 實物이 있게 하실 수 있습닛임니다。아! 아! 學者너를 지으신 하나 님이 갓아사대 적게 배운 者여! 科學의 識見은 엇지 되었던지 너의 所學을 始捨하고 나를 從하여라 또 너의 生覺을 사로잡아 十字架에 못박으라。그리하고 또 너의 生애와서 부르지 저지求하라 그리하면 네가 오날까지 아지 못하던 큰 일과 秘密한 事로써 너의 게 회여 주리라

(耶卽三)  
(二) 二百斤 자리 大雹 (示十六〇廿一)

以上의 血雹은 怪常할 뿐이오 이러케 크지는 아니 하지만 수의 이 雨雹은 비록 普通色의 雨雹일지라도

其大가百斤重이 된다하니 其可恐戰慄함은 血雹以上  
 일것이올시다。異常한것은 近來의雨雹은 前日在來  
 의種과달나서 둥근것뿐아니라 鎗尖부러진것처럼썩  
 죽썩죽한것이 漸々작고자타서 키가는것이외다 그  
 것이將次 얼마나키질것이냐하면 百斤重되리만큼  
 키질預言이올시다。이제 우리가 그漸々키지는것을  
 細心查考하여봄시다。몬저 우리朝鮮의在來種雹으로  
 말하면 豆, 太, 又或最大者라야橡實 李純朝廿一年에編那  
 大의雹이있은外에는  
 갓흔것뿐이지만은 千八百九十七년에는 米막지니아  
 地方에 螺旋形으로 長約二인치의 雹이降하였다하  
 고 明治四十一年六月에 日本東京地方에는 直徑이  
 三寸五分重이 五十多의雹이降하였다하고 千八百十  
 七年五月에 英슈오외에는 日本人的牧丹餅갓흔 雹  
 이降하였다하고 千八百十八年七月에 스크슬넨드,  
 오구네島에는 鵝卵大의雹이降하였다하고 千八百八  
 十八年五月에 東印度에서는 大雹이二百五十八을壓  
 殺하였다하고 千九百二十五年六月十日에 日本北海  
 道上川郡에는 拳大의雹이降하였다하고 年代는未詳  
 하나 埃及에는 頭大의雹이降하야 牛, 羊, 駱駝,

人의類를大壓殺함으로 그後브리는 雹災會社까지組  
 織하였다하니 此等의雹도 大則大矣라 하겠지만은  
 아직도百斤의大가되랴면 한참더자타야 되겠습니  
 다 아! 무성다。百斤이얼마오닛가? 本人이비록말나  
 배짖스나 九十四五斤이외다。그런즉 나보다 아직  
 도 四五斤이 더무거워져야하겠스니 그얼마나大  
 하고 또한重하오닛가。참으로놀날만한 末世最大의  
 兆朕인雹災이외다。

(注意) 饑饉, 惡獸, 疫病, 劔 (結五〇十七) 猛烈  
 한火燭 (即饑饉하는火燭) 暴風, 大雹 (賽卅  
 〇卅)

此二節의七災는 即以上諸種의 災를總括한節이외  
 다。

一七、僞預言者가多起할것

(太廿四〇五、廿四)。

大抵僞預言者라함은 비록基督敎人이라도 하나  
 必서 親히보내신이가아니면 그는곳 僞預言者中의  
 一이외다 (耶廿三〇)。以上에도路陳할과갓치 現今의思  
 想을鼓吹하며 主義를唱鳴하는者들이 如出一口로다

「各各自己의 思想과主義가 將次이世上을救濟한다  
 現社會를改善한다 革新한다하나니 그들은即 種  
 의 僞預言者들이외다」  
信者不信者를勿論하고그  
 에게主觀하는者들은외다

一八、不法이盛함으로(사람들의)愛

情이漸漸서늘하여질것

(太廿四)十

「自今以後이라하는것이 무언이나하면 或此世의國法  
 을無視하고 各事러行하는것도되겠지만은 特別히하  
 나님의聖法을無視하고 仍舊한理由외條件을분치키며  
 萬世不變의 神의聖法을違反하여 肆意變改하여키며  
 大膽不氣로敢行할 僞基督과 및그의前驅者들의惡思  
 想惡行動을指하여 言함이외다。 後二章八節의(不  
 法者)는 即此(不法)을 大膽으로肆意敢行하는僞  
 基督을指하이니 此에그不法의事를 詳細히枚舉키到  
 底不能하매 다만 그不法의最大한것만 略舉코저하  
 나이다。 現世의所謂識者들中의多數가 基督敎의贖罪  
 救靈의眞理를 懷疑否認하는事는 말서遙遠한過去의  
 事이고 只수는普通道德의大基礎까지 是認치아니하  
 고 所謂現代의 新道德이라는 惟巧한僞說下에다가  
 如千膽大치못하는 그말을드르면늘나서 뒤로너머

질만한 무서운問題를提出하나니 그問題는無神論即  
 하나님 眞神의存在를否認하며 又(無神論即鬼神

僞神의存在도否認) 하고 (「惡鬼가鬼即眞神自己의存在를是認  
 此巧言을以니現代에鬼의存在를否認하는者는皆此巧言에依인한다  
 今鬼는故로爲先鬼即自己의存在를否認하고眞神의存在도否認하는  
 此巧言을以니現代에鬼의存在를否認하는者는皆此巧言에依인한다

다만(自己만이모든사람들이 崇拜할만한最尊者라)고

妄自尊大의言을敢吐하는同時間 又(엇지하여 殺人

이罪惡이냐) (現今私有財產制를撲滅하고 其法在制로되자는主  
 義의 又(엇지하여奸淫이罪惡이냐) 共妻主義) 又(엇지

하야 攘奪하는것이罪惡이냐) (現今의 自己들이엇고남이도  
 他彼를攘奪할것은攘奪하여其者의平均分能하는의 同의  
 이可하다하는우로모르코고無知의主義의 產源들의) 죽일것은죽

이는것이 도로혀法(新法)이오 또한道德 新道이오

또한德이저 그렇치아니한것은 卽法도아니오 道

德도아니라 그런故로 舊法律舊道德이라는것은 現

代文明에는 맛지가아니하고 오직이러한新法律과新

道德이라야 現時代에맞는다함과 又現代의自由,結

婚,離婚,人類又夫婦의平等,戀愛,無父,無君,無

政府,無師傅,無長幼,無妻,共妻,快樂,唯物等의

主義와 精神行動과及 其他種種한神의 聖法에違反

되는事들이올시다。此等不法의精神,思想,行動이世

上에盛行함으로 사람들의사랑即夫婦, 父子, 君臣, 師傅, 朋友, 社會間의사랑이 漸冷하여가나니 맞치 一般生物의體內에 熱이漸冷하여같은 即其生命이 漸漸업서저가는것과갓치 此人世의熱即愛가 漸漸 날노식어가는것은 實全世界人類의生命이 漸漸업서저가는아니니 全世크리스찬의生命이 漸漸업서저가는徵兆이을시다. 오! 主의內의兄弟들이여 未信者를은 置之勿問하고 몬져우리信者들의 彼此間사랑이엇더하오닛가 十餘年前만하여도 信者들이서로맛나면 서똥한사랑의氣味가 바로코를 感觸하였스나 近者에는 맛나면水庫役夫들이 서로맛나는것과갓치 코꽃이바로저늘하야 한참만더마조섯스면 흘너나리던코꽃이 곳어름이될듯하의다. 아! 아! 이것이다

— 現時代文明의所産이외다. 不法이此極에達하였스나 칸트의(無上命法)과 (하나님의誠命)과 (良心의命令)가흔것들은 다—置之勿問하게된 眞暗黒大不法의危急存亡의秋을시다. 그럼으로 宗敎는키녕道德까지 말할것업게되었스니 참으로 人類墮落의絶下이외다. 며들은果然(惡을善이라하고 善을惡이라하며 暗을光이라하고 光을暗이라(三五〇) 하는者니 禍의술지어다 하나님께서 此를俯察하시교 이제(勿殺)

(勿淫), (勿盜奪) 하라하신命令으로 칼을삼아가저서 此不法의類들과싸호사 審判하시리니 그審判이 將次臨하겠지만은 只今말서臨하는中에잇습니다. 그던즉 此時를際하야 우리하나님을畏하는者들은 맞담히 (我的百姓이여 爾家에入하야 其背後의門을閉하고 憤怒가지나가기썩지 暫間숨어잇스라 불지어다. 여호와썩서 그곳에서나아가사 地에住하는者의 不義를討伐하시리라 (三十一) 하심과갓치 이審判이여 주의피발닌 우리의背後門으로 逾越하기를, 아! 멘(注意)。人이神의法을破한다하지만은 하나님의法이 決코人의게 세르려지아니한다. 人이神의法을破한다하면 人이스사로 自己를破함이외다 實그러나하면 (人이萬一我의律法을破하고 我的誠命을守치아니하면 我가杖으로써 彼等의惡을討伐하고 鞭扑으로써 其邪曲을討伐하리라 (三十一) 하심과갓치 하나님께서 막대와채찍으로써 그들을 치시겟다하심이외다. 그막대와채찍이 무엇이냐하면 卽以上의各種의災殃即饑饉, 疫病, 戰爭, 猛獸, 雨雹, 地震等이외다. 그런즉 此等의災罰은卽皆하나님께서 以上不法의 人世를審判하심이을시다.